

환상과 부재, 소외의 도시

— 쉬저천(徐則臣)의 〈아, 베이징(啊, 北京)〉을 중심으로 —

신민준*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V. 향촌으로의 불안정한 회귀 |
| II. 환상의 세계, 베이징 | V. 나오며 |
| III. 소외와 부재의 증표 | |

I. 들어가며

유구한 중국의 역사 속에서 베이징은 고도(古都) 중 하나이자 현재 중국의 수도로서 특별한 의미를 점하고 있는 곳이었다. 문화, 정치, 사회 등 각 방면의 정점에 군림하던 베이징은 자연스레 중국인의 마음속에서 사회적 주류 계층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하나의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주류'에 편입되고자 하는 '주변부'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베이징의 양태는 현대 중국에 이르러서 여전히 잔존해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중심이 남쪽 지방으로 넘어간 이래로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오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상징성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곧 베이징이 사회 주류 계층이 지니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수료,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원 참여대학원생.

고 있는 힘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이 지배하는 베이징 속에서는 거대한 알맹이들 사이의 빈틈이 부지기수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역설적이게도 소외와 부재가 가득한, 공허한 도시가 되었다. 덩판(丁帆)은 “중국 대륙과 같은 광활한 토지 위에, 농경문명과 유목문명, 산업문명과 상업문명, 포스트산업 문명과 정보 문명 모두가 1990년대 이후의 지리적 영역 위에 공생해왔다”¹⁾고 한 바 있다. 이는 그만큼 중국 내 수많은 거대담론들이 난립하여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주변화된 사람들의 부재와 소외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푸코가 고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이들 거대담론은 그것을 형성하고 이용,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운용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결국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자신의 시야 안쪽으로 두고자 하는 뜻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기에 주변부의 사람들은 사회적 거대담론에 의해서 언제나 소외되어왔고, 그들은 부재의 존재가 되었다. 존재하나, 동시에 부재하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장리신(張立新)은 쉬저천이 그려내는 타향과 고향 사이에서 인간 삶의 복잡함과 아픔을 찾을 수 있다고 평했다.²⁾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작품 속 인물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고향이다. 장리신이 말하는 복잡함과 아픔은 단순히 고향을 떠나옴과 함께 타향과의 비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 고향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

1) 在中國大陸這塊幅員遼闊的土地上,農耕文明和遊牧文明、工業文明和商業文明、後工業文明和信息文明都共生於20世紀90年代以後的地理版圖之上。덩판 역시 이러한 거대담론들의 난립 뒤에 점차 자신들의 자리를 잃어가는 향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21세기 향토문학이 변화하고 재조명받는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주변화되고, 더 나아가 내부 식민지화 되어가는 향토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향토문학의 재흥기를 논한 덩판의 논점은 본고가 지니는 문제 의식의 출발점과 유사한 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丁帆, 〈中國鄉土小說生存的特殊背景與價值的失範〉, 《文藝研究》 第8期, 2005를 참조.

2) 張立新, 〈在故鄉與他鄉之間的精神往返——徐則臣小說創作論〉, 《當代文壇》 第3期, 2007, 91쪽.

이다. 상기한 부재, 소외 등은 단순히 공간적 이별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개체가 겪는 복잡함과 아픔은 관계함을 구성하는 각 항들의 특징들이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에서 전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통해서 물질적, 지리적인 피상적 변화가 아니라 내면적, 본질적인 변화와 그것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쉬저천의 작품 〈아, 베이징〉은 이를 지리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 쉬저천은 자신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나의 흥미는 인간,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장력에 있다”³⁾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쉬저천이 인간, 그리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정서적 측면과 ‘공간’ 사이의 역학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쉬저천의 창작에 있어서 기저에 보이는 인식은 〈아, 베이징〉에서도 잘 나타난다. 작품의 주요 지리적 배경인 베이징대학(北京大學)와 그 주변에 대한 상세한 지리적 묘사는 베이징대학이 상징하고 있는 지적 담론 속 권위와 그것이 생산해내는 권력,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주변부의 모습을 여러 상징적인 증표들과 함께 드러내 보이고 있다.⁴⁾ 이는 단순히 베이징 대학과 그 주변부에 대한 표면적 묘사가 아닌, 베이징이라는 도시,

3) 我的興趣所在是人，是人和環境之間可能存在的張力。여기서의 ‘환경’은 단순히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특정 공간에 부여되어 있는 여러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쉬저천에게 있어서 자신의 고향인 쑤베이(蘇北) 지방과 생활 터전인 도시 베이징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바는 徐則臣, 〈區別，然後確立——答〈文學報〉傅小平兄十七問〉, 《黃河文學》第6期, 2007를 참조.

4) 전통적인 문학지리학의 측면에서 문학 작품 속 여러 요소들은 지리적인 요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실제 지명, 경관 등은 작가, 작품 속 인물, 독자들의 정서적 측면과 연결된다. 이러한 성격은 신문화지리학에서 더욱 발전하여 지리적 공간 속에 존재하는 사물, 발생하는 사건 등이 상징적, 심리적, 현실적으로 경관과 융합되어 드러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동훈, 〈문학지리학에 있어서 신문화지리 관점의 경관 독해: 『달콤한 나의 도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7, 8-15쪽 참조.

더 나아가 베이징과 향촌 사이의 역학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일종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 속 공간, 특히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묘사와 이것과 함께 등장하는 여러 상징적인 증표들 사이의 관계성, 더 나아가 베이징이라는 도시와 향촌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대비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재와 소외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날 중국 사회를 압축해서 살펴보는 것에 그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쉬저천은 ‘70허우’, 혹은 ‘중간대(中間代)’ 작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70허우’와 ‘중간대’라는 두 키워드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은 앞서 지적한 소외, 부재, 주변부 등의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중국당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1960년대생 이전 세대와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에서 자란 본격적인 세대인 1980년대생 이후 세대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1970년대생 작가들은 부득이하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시대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을 요구받았다.⁵⁾ 그러나 그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쉬저천이 베이징이 지닌 상징성 아래 방황하는 주변부 사람들을 그리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샤오옌쥘(邵燕君)은 쉬저천을 당대 중국에서 ‘징파오(京漂)’에 대한 창작에 관하여 당연 가장 돋보이는 작가로 평가한다. 샤오옌쥘은 ‘징파오’를 다루는 다른 작가들과 쉬저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베이징에서 방황하는 외지 사람들의 표면적인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처해있는 생존에 관한 처지와 베이징과 고향이라는 공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존재적 불안감을 표현했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⁶⁾

그러나 <아, 베이징>속 타향과 고향의 경계는 작품 속 인물들의 내면 속에서 허물어지게 된다. 앞서 살펴본 샤오옌쥘의 관점과 같이 쉬저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 존재의 위기라고 했을 때, 고향의 존재 또

5) 해당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張麗軍 外, <70後作家: 如何成爲“中堅代”>, 《小說評論》 第1期, 2015, 152-155쪽 참조.

6) 邵燕君, <徐步向前——徐則臣小說簡論>, 《當代文壇》 第6期, 2007, 25쪽.

한 인간에게 온전한 안식처를 마련해주지 못한다. 즉 보편적인 인식 속에서 현실의 표상들이 지니고 있거나, 혹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과 인간 개체가 어찌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내면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가이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질베르 시몽돈(Gilbert Simondon)이 말한 ‘개체화’는 유의미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고는 쉬저천의 대표작인 <아, 베이징>을 통해 드러나는 소외와 부재의 도시, 베이징을 그 속에서 등장하는 소외와 부재의 증표들과 상호작용하는 지리적 측면과 그 위에서 행해지는 행위 등이 형성해나가는 의미와 그 과정을 일종의 ‘개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개체화’로서 바라보고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묘사된 이주민들의 독특한 주체성과 정체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이러한 문제가 특정 지역,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각의 인간 개체들이 당면한 문제임을 확장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II. 환상의 세계, 베이징

첫 베이징 소설은 <아, 베이징>이다. 나는 ‘베이징’에 관한 어떠한 야심도 없었고, 심지어 베이징 이야기를 써야하는 명확한 의식도 없었다. 그것은 내가 베이징의 큰길을 지나온 이후에, 자연스럽게 남겨진 족적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쓸 수 있었고, 잘 써내야 했다. 나는 발생 가능한 이야기, 있을 수 있는 감상과 발견을 상상했다. 이 때, 나는 베이징에 있었고, 크게 보았을 때, 말하기 어려운 학술 용어에 부합했다. 현장에 결석하였거나, 현장에 있어 결석하였다. 학교와 진실한 베이징은 어떠한 면에서 단절되어 있었다. 나의 감상과 발견은 허구의 것이었으며, 실제 생활을 통한 증명이 없었다.⁷⁾

7) 最早的一篇北京小說, 《啊, 北京》, 我沒有任何關於“北京”的野心, 甚至都缺

상기한 인용문은 작가 쉬저천이 베이징 대학에서의 생활과 진실한 베이징이 서로 격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기인한 〈아, 베이징〉의 창작 시의 소감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아, 베이징〉에 대한 문제의식의 출발점을 밝히고 있는 글인 것이다. 이 글에서 쉬저천이 말하는 ‘진실한 베이징’은 쉬저천이 ‘베이징 대학’이라고 하는, 주류 지식 담론을 상징하는 공간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방인이었던 쉬저천이지만, 그는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이 말한 바와 같은 완전한 ‘잠재적 방랑자’는 아니었던 것이다.⁸⁾ 그러나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주변부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랑자, 떠도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쉬저천은 그러한 방랑자들의 현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한 차원에서 작가 쉬저천의 작품들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 ‘징파오(京漂)’와 ‘고향(故鄉)’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¹⁰⁾ 리단(李丹)은 쉬

少要寫一個北京故事的明確意識。它是我在北京大街上走過之後，自然而然留下的足跡。(중략)能寫，就得好好寫。我想象可能發生的故事，可能有的感受和發現。這個時候，我於北京，很大程度上符合那句繞口令似的術語：缺席的在場，或者在場的缺席。學院與切實的北京某種程度上是隔絕的。我的感受和發現純屬虛擬，沒有經過實實在在的生活來明。徐則臣，〈此心不安處是吾鄉〉，《無法返回的生活》，長江文藝出版社，2021，165-166쪽.

- 8) 게오르그 짐멜은 도시가 지니고 있는 ‘이질성’으로 인하여 도시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잠재적인 방랑자’로 만들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일종의 인간 개인의 주체와 정체성, 그리고 도시의 이질성 사이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외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출판사, 2005, 79-81쪽, 최영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차원의 공간분석방법론 구축 및 적용》,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5, 91쪽 참조.
- 9) 징파오라는 표현은 ‘베이파오(北漂)’와 같은 선상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징파오’라는 표현은 오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도들의 통칭이라 할 수 있는 ‘경성(京城)’이란 상징적 공간이 지니고 있는 시간적 역사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표현인 반면, ‘베이파오’는 ‘베이징’이라는 공간에 집중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문은 공간성은 물론, 시간의 누적물로서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쉬저천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쉬저천에 대한 중국 현지 연구들에 주로 나타나는 ‘징파오’라는 표현을 쓰고자 한다.

저천의 소위 ‘징파오 시리즈’ 속에서 “고향과 타향의 긴장 관계”가 나타나며, 이는 “대부분의 소설 속 주인공들이 고향에 대한 강렬한 염증(厭憎)과 타향에 대한 간절한 갈망”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¹¹⁾ 그러나 이러한 대비는 작품이 진행될수록 무너지게 된다. 자신이 갈망했던 ‘타향’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환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부재하는 상상 속의 ‘타향’ 베이징 속에서 베이징으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목적지를 잃고 떠돌게 되는 것이다. 쉬저천이 그리고 있는 ‘징파오’는 바로 목적지를 잃어 거처할 곳이 사라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베이징의 호적을 얻지 못한 채로 베이징을 떠도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베이징이란 도시의 ‘현실’이라면, 현재의 베이징은 주변부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의식, 부재의식이 떠돌고 있는, 소외와 부재의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외의식과 부재 의식은 유구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 형성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베이징의 모습은 현대적 대도시의 등장과 함께 중국적인 특색이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 대도시로서의 베이징, 그리고 중국적인 특색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 베이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현대적 대도시로서의 베이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미시적인 시선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을 가까이서,

10) 쉬저천은 징파오, 고향,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일(謎團),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비교적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지금 내가 써가고 있는 것의 방향을 개괄해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적지 않은 연구 결과들에서는 이를 쉬저천 작품들을 유형별로 구별 짓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 이는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 베이징>를 비롯한 전반적인 쉬저천의 작품 속에 공통적으로 담긴 문학 세계를 이해하고, 주제의식을 밝히는데 참조해야 할 핵심적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徐則臣, <區別, 然後確立——答〈文學報〉傅小平兄十七問〉, 《黃河文學》 第6期, 2007을 참조.

11) 李丹, <棄鄉與逃城——徐則臣“京漂”小說的基本母題〉, 《文藝爭鳴》 第11期, 2011, 73쪽.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현대적 대도시의 출현과 함께 게오르그 짐멜 등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기존의 거시적인 시각은 현대적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 속 복잡하고 세밀한 공간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해내지 못할 것이고 생각한 것이다. 무엇보다 현대적 도시는 과거의 공간들과는 달리, 시간적, 물질적으로 인간에게 ‘단편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는 도시 공간이 지니는 ‘의명성’을 강화시켰고, 이는 미시적인 생활상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사유가 중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¹²⁾

이러한 차원에서 베이징이 지니고 있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권위는 무너지고, 인간 개체에게 베이징은 소외와 부재의 공간으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상기한 바를 정리하자면, 베이징이라는 공간은 인간 개체와 그들의 일상생활이 담긴 공간이며, 정치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공간이지만, 이것들이 새롭게 상호작용하면서 베이징이란 도시가 지니고 있던 권위는 미시적인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 개체에게 더 이상 이상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변모한다. 오히려 추구할수록 그들이 바라던 이상과는 멀어지는 고통을 마주하게 만드는, 단지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즉 미시적 가치와 거시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며, 그에 따른 현실과 환상의 간극이 발생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 속에서 인물들은 어찌 베이징과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결과물을 형성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어찌하여 베이징 밖의 작은 소도시의 사람들이 베이징으로 몰려드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그의 산문에서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밖으로 나가 보길 원했는데, 나가길 원하는 바람이 큰 바람

12) 김홍식, 《현대 도시 산책자(Flâneur)로서의 장소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1, 21-22쪽.

과 같이 고무되어 나로 하여금 장래에 대한 알 수 없는 희망이 충만하도록 하였다. 희망 속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으며, 알 필요도 없었다. 단지 추상적인 신념만으로도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에게 온몸으로 불완전한 힘을 발하도록 하기에 충분했다.¹³⁾

무언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을 이끄는 어떠한 희망, 그리고 그것을 좇고자 하는 신념이 오랫동안 자신의 거처로서 존재해왔던 향촌을 떠나 베이징이라는 미지의 도시에 도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지의 공간이었고, 따라서 추상적인 공간이었다. 이는 곧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베이징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이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발생한다.

나는 베이징에 온적이 없었고, 베이징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없었다. ……(중략) 내 고향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은 모두 베이징에서 밥벌이를 하며 살아갔다. 우리는 이를 “베이징으로 달아난 사람들”이라 하였다. 그들은 앞장서서 돈을 벌었고, 그들은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아득히 머나먼 속사정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들 속사정 속에는 황금빛이 발하는 얼굴빛이 어두워져야 했거나, 황금빛이 빛나는 것보다 더욱 눈부시기도 했다. 이밖에, 베이징 대학, 칭화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은 까오카오를 본 사람들에게는 은연 중의 성지였으니, 내가 베이징 대학 중문과에 대학연구생으로 입학한 것은 성지순례와도 같은 것이었다. 당연히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리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나오게 만들어 볼 수 있게 하였다. 나는 나쁜 마음을 먹고, 한시라도 빨리 세계로 나가 보고 싶었다. 나는 베이징을 본적이 없었고, 그곳에서 물 한잔 마신적도 없었다. 이 도시는 나에게 여전히 추상적인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모두 혈육이기에, 우리는 점차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¹⁴⁾

13) 我希望有一天能到外面看看, 出走的念頭大風一樣鼓舞著, 讓我對將來充滿莫名其妙的希望。希望裏可能有什麼, 不知道, 也不必知道, 只一個抽象的信念就足以讓一個二十出頭的年輕人渾身生出使不完的勁兒。徐則巨, 〈生活在北京〉, 《無法返回的生活》, 長江文藝出版社, 2021, 119쪽.

14) 我沒來過北京, 對北京也沒什麼概念, ……(중략) 我老家的很多年輕人都在北京

이러한 쉬저친의 베이징에 대한 첫 인상은 그대로 작품 속 주인공 벤홍치(邊紅旗)에게 이어졌으며, 이러한 추상적이고 맹목적인 베이징에 대한 희망은 곧 베이징을 “환상의 세계”로 만들어냈다.

나는 언젠가 꿈꿈이 생각해왔다. 벤홍치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중략) 내가 생각해낸 이유는 단 하나, 벤홍치는 밤에 도착했고 나는 낮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네온사인에 둘러싸인 베이징의 밤은 확실히 아름답다. 어디를 가도 화려하고 웅장하다. ……(중략) 도처에 번쩍이는 대형 유리화 스테인리스 반사광 때문에 깊고 깊은 **환상의 세계**에 빠진 것 같았다.(강조 - 필자)¹⁵⁾

벤홍치가 베이징을 “환상의 세계”로 인식했던 것은 분명 단순히 상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베이징의 화려한 광경을 직접 바라보고, 그러한 이미지들이 내적에 자리 잡고 있던 베이징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과 결합하며 만들어진 세계, 즉 현실적 지리적인 경관과 심리적인 동경이 상호작용하며 융합된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의 세계는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신념, 희망에 의해 만들어진, 온전한 현실일 수가 없는, 그야말로 환상의 세계이다. 주인공 자신이 거쳐하고 있는 현실, 진실과는 더욱 거리감이 있는, 그러면서도 결국 다가갈 수 없는 일종의 상징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환상의 함정에 빠져버린 벤홍치는 자신의 이름(邊紅旗)과 같이 베이징을 떠나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 주변부가 되어 정처없이 ‘떠돌

混飯吃，我們稱之為“跑北京的”，他們率先發了財，他們帶回來無數真偽難辨的遙遠的細節，在這些細節裏，金光閃閃的顏色時常要暗下來，或者比金光閃閃更耀眼；此外就是北大、清華等高校，這是所有經過高考的人暗藏心中的聖地，而我考的是北大中文系的研究生，這朝聖般的旅程；當然，更為重要的理由在這裏：它能讓我出來看看。我憋壞了，迫不及待要到世界上看看。沒看過北京，沒在它的某條街道上喝過一杯水，這個城市對我依然是抽象的。但我覺得我們是親人，我們會一點點熟悉起來。徐則臣，위의 책, 119-120쪽.

15) 쉬저친, 양성희 옮김, <아, 베이징>, 《아, 베이징》, 글항아리, 2019, 30-31쪽.

게' 된다. 이러한 주변부로서의 뽕홍치의 처지가 지리적인 측면으로 매우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의 주요 무대는 바로 베이징대학을 둘러싼 그 '주변부'이다. 작품은 이러한 '주변부'를 매우 상세히 묘사해내며 뽕홍치가 떠도는 곳이 정치권력의 중심부로서의 베이징이 아닌, 소외와 부재가 팽배하는 베이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 주로 등장하는 베이징대학의 '주변부'는 크게 거주지 역할을 하는 서문(西門) 부근, 뽕홍치의 위조 증명서 장사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중관촌 및 남문 부근, 그리고 화려한 베이징을 시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동문 부근,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구역에 대한 쉬저천의 묘사는 기본적으로 실재하는 공간으로서 이루어지지만, 그 속에서 또한 지리, 행위, 대화 등 각기 다른 세 가지 성격을 지닌 채로 구현된다. 그중 거주지에 해당하는 서문 부근은 직접적인 지리적 묘사로써 구성된다.

나는 대학 동기 명이밍(孟一朋)과 베이징 대학 청찌위안(承澤園)에 있는 방 3개짜리 낡은 아파트에 세 들어 산다. ……(중략) 평소 대학을 걸어갈 때는 웨이슈위안(蔚秀園)을 통과해 완촨허(萬泉河)를 건너면 바로 청찌위안의 아파트에 도착했다.¹⁶⁾

비록 베이징이라는 도시, 그리고 아파트라고 하는 현대 문명의 산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을 향하는 길은 마냥 도시적 풍경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 청찌위안의 아파트 역시 화려한 환상의 세계에 맞지 않게 너무나도 허름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작가 쉬저천은 한 산문에서 청찌위안의 아파트와 비슷한 위치에 있던 대학원생 기숙사 주위의 풍경과 그에 대한 인상을 소개하며 작품 속 공간의 현실적인 지리적 경관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드러내 보였다.

16) 쉬저천, 위의 책, 16쪽.

기숙사는 완류(萬柳) 학생 아파트에 있었으며, 베이징의 북서쪽 모퉁이였다. 2002년에 나는 등록을 하기 위해 도착하여, 택시 기사가 반나절을 돌아다닌 끝에 먼지가 흩날리는 거대한 공사지역에 도착했다. 길은 반정도 고친 상태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대한 입구에서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기사가 말하길, 여기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때 당시 하이톈구 정부와 공안국은 황무지였으며, 중관촌 제3소학교는 자취가 없었다. 캉차오수이권(康橋水郡), 완청화푸(萬城華府) 등 고급 지역의 부지 위에는 낮고 넓은 단층집이 즐비해 있었고 근로자들은 먼지 속에서 걷고 있었다. 완전히 도시 안의 향촌이었다. 나는 이러한 베이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렇순 없었다.¹⁷⁾

쉬저천이 바라보았던 베이징의 현실 속 경관, 최소한 서문 부근의 경관은 상기한 바와 같았다. 캉차오수이권, 완청화푸와 같은 베이징 대학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호화로운 공간들과는 전혀 다른,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곳이 바로 서문 부근의 경관이었으며, 주인공인 화자와 그의 동창 이밍은 이러한 경관을 보고, 그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벤홍치에게 서문 부근의 경관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서문 부근에 자리 잡은 청쩌위안의 아파트는 너무나도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학문의 성지와도 같은 베이징 대학과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오로지 그 이유 하나로 벤홍치의 인식 속에서 청쩌위안의 아파트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환상 속 낭만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과거 고향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지금은 시인을 자처하는 벤홍치에게 있어서 베이징 대학은 환상의 세계 베이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17) 宿舍在萬柳學生公寓，北京的西北角。2002年我來報到，出租車司機繞了半天才找到一個塵土飛揚的大工地，馬路修了半截子，很多年輕人拎着行李在一幢巨大的樓前出入。司機說，只能是這裏。那時候海澱區政府和公安局還是一片荒地，中關村三小尚無蹤影，康橋水郡、萬城華府等高檔社區的地基上散布著低矮破舊的平房，工人們走在塵土裏。完全是都市裏的鄉村。這樣的北京我有點接受不了，太不像樣了。徐則臣，〈四個住處一個家〉，《無法返回的生活》，長江文藝出版社，2021，123쪽.

“여기, 집 좋은데요? 이름이 뭐예요?”

“아파트 이름이요? 꺾안(左岸).”

“센강 리브고슈?”

……(중략)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한테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완전히 왼쪽 언덕이니까 꺾안인 거죠.”

……(중략)

“여기 꺾안도 좋네요. 완전히 꺾안, 원래 물가가 살기 좋죠.”¹⁸⁾

화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허름한, 그리고 단지 완전허란 이름을 지닌 작은 하천의 왼쪽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꺾안이라는 아파트는 벤홍치에게 있어서 프랑스 센강의 리브고슈와도 같은 곳인 것이다. 쉬저천은 실제 지리적 경관과 벤홍치의 심적 공간 이미지를 어느 한 쪽에 편중시키지 않고 계속 대비시키면서 드러내 보임으로써 “환상적인 세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 환상적인 공간으로 향하기 위한 벤홍치의 여정은 곧 자신이 꿈꾸는 베이징을 좇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다. 쑤베이(蘇北)의 작은 도시에서 바거우춘(巴溝村)의 낡고 작은 집으로, 그리고 시위안(西苑)을 거쳐 꺾안에 이르기까지, 벤홍치의 여정은 그 거리도 거리지만 특별한 거처가 없이, 작가가 부단하게 강조하고 있는 ‘떠도는(漂泊)’ 듯한 모습은 보여준다. 베이징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하이톈(海澱)구 다다르게 된 벤홍치이지만 그 어느 곳도 온전한 거주지가 되지 못했으며, 마치 베이징 대학 근처를 서성이는 듯한 인상까지 주게 된다. 벤홍치는 “자신이 뭘 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혔지만 뭐든 자신 있었다. 기자나 편집 같은 일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¹⁹⁾라며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온전한 자신의 신분적 정체성을 지닌 채로 내부로 진입할 수 없었던, 어디까지나 주변인에 머물러 있는 인물이었다.

18) 쉬저천, 양성희 옮김, <아, 베이징>, 《아, 베이징》, 글항아리, 2019, 18-20쪽.

19) 쉬저천, 앞의 책, 31쪽.



〈그림〉 베이징 대학 주변 지도(지도 출처: 바이두 지도)

그렇게 이사를 다니며 정처없이 떠돌게 된 벤홍치는 환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욕망의 대상들과 마주하게 된다. 돈과 여성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진실 된 현실 속 베이징을 벤홍치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벤홍치의 눈 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세계는 베이징에 대한 벤홍치의 동경, 지리적 성격, 그 주위를 맴도는 여러 상징물들이 상호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허구의 세계임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아니다. 상기한 여러 요소들이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맺으므로 벤홍치의 내면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형성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적인 관계 맺음과 그 결과물은 작품 속에서 인물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또 다른 관계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벤홍치에게 베이징은 본래 지식인으로서,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의한 목적지였다. 그러나 환상의 세계 베이징에서의 삶은 “객관화하고 도구화시켜 버림으로써 얻어낸 결과”²⁰⁾였다. 더 이상 자신이 마주한 것들 사이의

20) 김홍식, 위의 논문, 22쪽.

상호작용은 뵈홍치가 본래 지녔던 꿈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뵈홍치는 더 이상 나에게 심리적 안식처를 마련해주는 것들과의 상호작용을 맺지 못하고, 순간 순간 자신을 떠나버리는 쾌락, 욕망 등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삶의 모습과 지리적 변화 사이의 모순됨은 자신의 본질적인 것 으로부터 멀어지는 뵈홍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쉬저친은 이것을 묘사해내기 위해서 점차 시인, 지식인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베이징 대학에 가까워져가는 뵈홍치를 실제 지리적 요소를 통해 그려냄과 동시에, 그 이상과 멀어지는 뵈홍치의 삶을 그려낸 것이다. 뵈홍치는 현실 속 베이징 대학이라는 지리적 경관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진실된 베이징과는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작품 속 실제 지리적 경관과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여러 증표들은 어디까지가 환상의 세계 속 욕망이 투영된 존재들에 불과했다. 쉬저친의 이러한 창작 속에는 실제 지리적인 요소와 내적 상징들이 효과적으로 융합하며 만들어낸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증표들로 나타나며 직간접적으로 환상적인 세계로서의 베이징으로부터 벗어나 소외와 부재의 공간으로서의 베이징을 보여주게 된다.

Ⅲ. 소외와 부재의 증표

질베르 시몽동은 이 세계의 추상적인 것부터 물질적인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서로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 개체화하면서 살아간다고 보았다.²¹⁾ 그리고 시몽동에게 있어서 개체화는 개체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며, 개체화의 질료들이 지니는 특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²²⁾ 남이 자신을 어찌 바라보는지, 그것을 내가 어찌 받아들이는지

21) 황수영,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그린비, 2017, 40-62, 103-188쪽.

22) 질베르 시몽동, 황수영 옮김,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그린

를 통해서 나 자신의 개체 또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여기서의 개체는 나 자신의 구체적인 신체를 포함하여 신념, 주체, 정체성 모든 것을 포함하며, 심지어 집단 역시 나타낸다. 따라서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결국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이루는 항들의 성질보다는 물질들 사이, 물질과 생명,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 관계성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그 개체는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래의 인용문을 보도록 하자.

신분. 이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너는 누구지? 에 관한 것이다. 과거에 나는 당당히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었다. 나는 학생이고, 교사이고, 이에 대한 증명할 기록이 있다고. 신분증, 당안, 학생증, 교사증, 모든 것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은 너를 확인시켜줄 것이고, 그 지역에서 너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베이징은 외래인인 너에게 호적과 기록을 꺼내보여 내가 믿을 수 있는 내력과 귀속처가 있는지 증명해보이라 한다. 하나의 시스템 체계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체계 안의 사람들이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꺼내보라고. 그럼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만약 네가 꺼내보일 수 없다면, 너는 오직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다. 추상적인 것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모두 자신의 안목이 틀렸음을 보아라.²³⁾

위의 인용문은 쉬저천이 베이징에서 생활하면서 신분에 대해서 느껴던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이다. 이 속에서 과거의 나는 내가 누군인지 남

비, 2017, 37-50쪽.

- 23) 身份。這不是你從哪裏來的問題，而是：你是誰？在過去，我可以理直氣壯地告訴任何人，我是學生，我是老師，有案可稽。身份證、檔案、學生證、教師證，每一個硬硬的都在，它確認你是你，這地方你可以合法自在地活下去。但現在，北京要求你這個外來人拿出戶口、編制，證明你有可靠的來源和歸屬。一種機制在要求，機制裏的人也在要求，拿出來吧，給你自由。如果你拿不出來，你只能不自由。從抽象的到具體的，大家看你的眼神就不對。徐則臣，〈此心不安處是吾鄉〉，위의 책，166쪽.

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나 자신이 당당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주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틀렸다는 것일까? 그것은 간단할 것이다. 당신이 상상한 그 환상의 세계는 현실과 다른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와 부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얼마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할 때, 나 자신이 그러한 주체성을 지니고 있지 못할 때, 나는 소외와 부재 의식을 지니게 된다. 결국 베이징은 나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주체가 발견되지 못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벤홍치에게 있어서 베이징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쉬저천은 이를 벤홍치의 신분적 정체성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다. 베이징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베이징 대학 안에서 벤홍치는 위조 증명서 판매자라고 하는 현실 속 실제 신분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그는 베이징 대학 안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신분인 ‘시인’의 신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또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시인일 수밖에 없다.

“저는 벤홍치입니다. 확실히 아마추어 시인이죠.”

……(중략)

“시를 쓸 때는 변방 요새를 뜻하는 ‘벤짜이’를 필명으로 사용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발표한 시는 한 편도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시인 앞에서는 건 처음이라 조금 긴장됩니다. 아, 저는 벤짜이입니다. 저는 펜을 드는 순간 시인이 되지만, 아직은 혼자만의 생각이죠. 그러나 펜을 내려놓으면 위조 증명서 장사꾼입니다.”

……(중략)

“위조 증명서 브로커가 아니라 시인으로서 초대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니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⁴⁾

이는 처음 화자와 그의 동창인 멩이밍과 그의 애인인 사슈(沙袖)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제 아침에 본 그 사람 말이죠?”

“맞아요. 위조 증명서 장사꾼인데 사람은 아주 괜찮아요.”

“위조 증명서?”

사슈가 마뜩잖은 반응을 보였다.

“이밍이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사람은 확실히 좋은 사람인데... 아, 종종 시를 써요.”

“시인이라고요?”

사슈의 미간이 살짝 풀어졌다.²⁵⁾

이러한 장면들은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분적 정체성과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성을 살펴본다면 조금은 실마리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베이징 대학 밖의 주변부, 즉 현실 속에서 뻗어나가는 위조 증명서 장사꾼으로서 화자나 이밍보다 더욱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으로 온전하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부의 시선으로, 혹은 특정 담론 등이 그 인간을 규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름일 것이다. 쉬저천은 자연스럽게 주인공 뻗어나가는 이름을 통해 베이징을 떠도는 이주민들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신분적 정체성과 공간 사이의 역학작용이 발생한다. 작가는 주인공 ‘뻗어나가는(邊紅旗)’의 이름은 매우 선명하게 자신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드러내 보인다. ‘홍치

24) 쉬저천, 양성희 옮김, 〈아, 베이징〉, 《아, 베이징》, 글항아리, 2019, 11-13쪽.

25) 쉬저천, 앞의 책, 20-21쪽.

(紅旗)의 ‘주변부(邊)’에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주인공 벤홍치인 것이다. 여기서 ‘홍치’는 다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권력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드러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과거 청조 시절 수도 베이징을 상징하던 팔기 중 하나인 ‘정홍기(正紅旗)’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다. 바로 권력과 역사, 그리고 베이징이다. 즉 ‘벤홍치’의 이름을 통해서 권력의 도시, 베이징의 중심부로 진입할 수 없는, 중심부의 외곽에서 떠돌 수밖에 없는 ‘주변인’으로서의 벤홍치를 나타냄과 동시에,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지닌, 어쩌면 인류 보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벤홍치라는 한 사람의 내면 속에서 소외와 부재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벤홍치의 위조 증명서 장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남문 부근에서 보이는 벤홍치의 판매 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에서는 상기한 정체성과 주체성의 문제가 벤홍치와 같은 일부 주변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위조 증명서를 사가려는 타 지역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그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그 가치를 부여하는 벤홍치의 모습, 이들 모두는 현실 속에서 베이징 대학 안으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주체성을 지닌채로 들어갈 수 없는 현실과 더불어, 그것이 타인에게 인정받는다 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베이징의 화려함이 드러나면서 동문 부근에서는 떡거리로써 상기한 내용이 상기된다. 베이징 대학의 동문은 대로변에 수많은 차들이 화려한 불빛과 함께 도로를 달리는, 베이징 대학 주변 공간 중 가장 화려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벤홍치는 시흥(詩興)이 솟는다며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완성 서원(萬聖書園) 앞 육교에 올라갔다. 육교에서 내려다보는 베이징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다.²⁶⁾

26) 쉬저친, 위의 책, 84쪽.

그리고 이때의 감정을 시로 읊는다.

아, 베이징!
네 허리 위에 기어오른 나는
마치 개미 같구나²⁷⁾

이 시는 동문의 야경과 더불어 권력의 상징이자 욕망의 담체인 공간으로서의 베이징에 대한 집착과도 같은 벤홍치의 심리 상태, 그리고 이것을 한 도시 위의 개미 한 마리로 자신을 비유하며 베이징과 그 위를 떠다니는 자신의 괴리감이 커다란 것인지를 드러내 보인다. 이때에도 쉬저천은 완성서원 앞 육교에서 바라 본 실제 지리적 경관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이용하고 있다. 화려한 동문 대로변의 수많은 차들이 만들어내는 광경과 벤홍치의 시가 병치되면서 실제로 벤홍치에게 있어서 베이징의 모든 경관들은 동문 부근과 같은 화려한 경관으로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문에서의 작은 에피소드는 환상의 세계, 베이징에 권위를 부여한 것이 결국은 오랜 역사가 전해준 권위, 그로부터 나오는 권력임을 상기한 지리적 경관과 함께 보여준다.

그는 그날 정말 취했다. 난간 밖으로 떨어지던 시큼한 토사물이 마침 육교 아래를 지나던 뷰익 승용차에 떨어졌다.

……(중략)

남자는 나와 이밍을 번갈아 보다가 옆에 서 있는 미니스커트 여자를 보고 고개를 뺏뺏이 세우며 손을 흔들었다.

“됐소. 내가 알아서 하겠소. 차도 사는데 그깟 세차비 얼마나 한다고! 친구한테 술 좀 적게 마시라고 하쇼. ……(중략) 이래서야 위대한 수도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겠소!”²⁸⁾

화려한 동문 부근, 완성서원 근처의 화려한 베이징은 그 경관과 함께

27) 쉬저천, 위의 책, 85쪽.

28) 쉬저천, 앞의 책, 85-86쪽.

“위대한 수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위대한 수도”는 돈과 여자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공간으로 등장하였고, 벤홍치는 그러한 왜곡된 “환상적인 세계”에 매료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동문 밖에서 벤홍치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요리라고 할 수 있는 수이주위를 화자나 이밍에게 사줌으로써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 속 허구의 정체성, 주체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²⁹⁾ 그러나 쉬저천은 벤홍치에게 정작 요리 속 물고기를 허락하지 않았고, 오직 매운 국물과 콩나물만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역시 베이징 동문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베이징 대학 주변부에서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결합되면서 쉬저천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역시 중심부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과 다르게, 그 주위를 화려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있는, 여전히 환상 속에 빠져 있는 벤홍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상기한 벤홍치를 둘러싼 소외와 부재의 증표들은 앞서 살펴본 환상적인 세계의 형성과정과 유사성을 지닌다. 서문과 동문에서 보여준 벤홍치의 행위들은 단순히 벤홍치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치지 않는다. 그 장면 속 행위 자체가 타자, 신분, 욕망 등과 새롭게 맺는 상호적인 관계이다. 이들 관계 속에서 돈, 권력, 욕망 등의 증표인 신분, 음식, 여자 등은 소외와 부재의 증표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각기 다른 요소들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벤홍치의 개체성은 더욱 더 소외와 부재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앞선 장과 본장에서 제시된 지리적 묘사는 위조 증명서, 호적, 이름, 수이주위 등의 상징적 증표들과 융합하여 인물에 대한 신분적인

29) 작품 속 수이주위는 동문 밖에서만 등장하는 요리는 아니다. 서문의 거주지인 청쩌위안 근처의 사천 요리집에서도 벤홍치는 같이 사는 룸메이트들에게 값비싼 수이주위를 대접한다. 그러나 동문의 화려하고 권력의 응집체인 베이징과 만나게 되면서 벤홍치에게 수이주위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며, 이것이 감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본문의 시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 그에 따른 주체성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 소외, 그에 따른 존엄성의 부재 문제와 결부된다.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할 때, 타인에게 구별되었을 때, 인간은 극한의 부재 의식, 소외감에 사로잡히게 되며,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사력을 다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저천은 이러한 감정 묘사를 화자를 거치면서 매우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 아래는 그의 한 예시다.

이 삼륜차는 그와 베이징을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였다. 삼륜차를 잃어버린 순간 발 디딜 곳 없이 땅을 밟지 못하고 하늘에 붕 뜬 기분이었다. 자신과 베이징을 이어주는 유일한 관계 증명이 사라지자 그는 처음으로 이 도시가 자신을 거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베이징과 전혀 관계없는 낯선 이방인일 뿐이었다.³⁰⁾

위의 인용문에서 등장하는 삼륜차는 위조 증명서 장사를 하기 이전, 벤홍치에게 있어서 베이징과 자신을 이어줄 유일한 매개체였다. 이를 경찰에게 불법으로 규정받으며 빼앗겼을 때 느낀 감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위의 인용문이다. 매우 급박한 상황이며, 그 상황의 당사자인 벤홍치 역시 베이징과 만나게 되면서 격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나, 실제 그 당시 감정에 대한 묘사는 타인의 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담담하게 전해진다. 여기서 전해지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벤홍치와 다른, 현실 속에서 나뉠 인정받는 베이징 대학 출신의 작가 지망생으로서의 화자는 같은 외지인 출신이더라도 결코 벤홍치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베이징에서 멀어지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부재와 그에 따른 소외감이 베이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전자는 앞서 설명한 베이징 대학과 그 외부의 공간 사이의 역학 관계에서 유추 가능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0) 쉬저천, 위의 책, 36쪽.

IV. 향촌으로의 불안정한 회귀

향촌, 또는 고향 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을 포함한 수많은 예술 작품들 속에서 도시와 대비를 이루는 공간으로 등장해왔다. 이는 향촌, 고향 등이 지니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과 당시 사회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지리적 묘사를 통해 심미적 효과를 주는 것에 이른다. 따라서 두 상이한 공간 사이의 대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문학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고향이라면,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향촌이라면 안정적 정체성을, 또 굳건한 주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쉬저천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자신의 주체,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이고, 회귀할 가치가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리단의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듯, 작품 속 인물들에게 ‘고향’은 더 이상 거처를 마련해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즉 쉬저천의 인물들에게 있어서 고향과 타향, 베이징은 그 어느 곳도 나를 나답게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이다. 단순히 지리적 측면에서의 고향, 향촌으로 되돌아가 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쉬저천의 생각은 아래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있는가? 안정감을 얻는 것이 나에게 뿌리 깊은 안정과 위안을 줄 수 있는가? 아마도 (그런 곳은) 없을 것이다. 비록 고향, 쑤베이 그 작은 도시들과 향촌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점차 불안해질 것이다. 나는 하루하루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며, 익숙한 사람들이 낯설어졌으며, 옛 전원과 지형은 보이지 않고, 마치 내 몸에서 생성된 혈관과도 같은 뒤쪽 시냇물이 메워져 버렸다. 고향은 마치 또 다른 낯선 생활의 궤도에 진입한 것 같다. 나는 돌아가더라도, 마치 타지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 짐작하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역시 외지인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집에 있어도 이따금씩 불안해질 것이며, 아버지 세대, 할아버

지 세대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미 떠나면 꿈속일 것이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31)

상기한 인용문을 통해 같은 ‘향촌’이라고 함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식의 차이에서 크나 큰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고향인 향촌이 더 이상 나와 친밀하지 않고, 무언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곧 본래의 정체성과 현실적 공간 사이의 간극이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그 간극의 크기만큼 나 자신은 정체성의 불안정성에 의한 더욱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작품 속에서 되돌아가고자 하는 향촌은 오늘날의 향촌이 아닌, 과거의 향촌이며, 과거로의 회귀는 본래의 정체성, 주체성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위 말하는 ‘향촌의 상실’³²⁾인 것이다.

자이원청(翟文鉞)은 쉬저천이 향촌에 대한 모종의 동경, 폭로, 그리고 연민 등의 서로 모순된 감정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³³⁾ 이러한 모순됨은 쉬저천이 그려내는 향촌 역시 더 이상 귀속처가 될 수 없는 공간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앞서 살펴본 벤홍치와 다른 존재들 간의 관계 맺음, 그 과정 속에서 벤홍치의 개체성이 점차 소외와 부재

31) 可是，有讓我心安的地方嗎，心安得讓我有紮下根的踏實和寬慰？好像也沒有。即便故鄉，蘇北的那個小城和鄉村，我也逐漸心有不安。我在一天天遠離那裏，熟悉的人陌生了，舊時的田園和地貌不見了，像生在我身上的血管一樣的後河都被填平了。故鄉仿佛進入了另一種陌生的生活軌道。我回去，如入異地；料想很多人看我，也是不識的異鄉人。待在家裏，偶爾也會沒著沒落，父輩祖輩的故事聽起來都遠在夢裏。我不知道哪個地方出了問題。徐則臣，〈此心不安處是吾鄉〉，위의 책，168쪽.

32) 흔히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언급한 ‘고향 상실’로 이야기된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고유한 성질을 저버리게 될 경우, ‘귀향’할 수 없는 일종의 ‘고향 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한 바 있다. 본문에서 불안정한 향촌으로 분석한 작품 속 향촌, 그리고 쉬저천의 향촌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윤병렬,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에서 고향상실과 귀향의 의미〉, 《현대유럽철학연구》제16호, 2007을 참조.

33) 翟文鉞, 〈70後一代如何表述鄉土——關於徐則臣的“故鄉”系列小說〉, 《南方文壇》第5期, 2012, 119쪽.

로 다가가는 개체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 베이징〉에서의 향촌은 기존의 향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쉬저천에게 있어서 향촌은 마냥 이상적인 공간이거나, 혹은 도시 중심화로 인한 내부 식민지화되는 공간도 아니다. 작품 속 향촌은 분명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희망을 위해 떠나가는 공간이지만, 다른 한편 도시와 대립 되는 나름의 정체성을 지닌 공간으로 나온다. 이러한 대립은 도시에 속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대변한다. 앞서 리단이 언급한 고향과 타향의 긴장관계 속에서 쉬저천의 인물들은 더 없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곳은 내가 속하고 싶은, 내가 얻고자 하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향촌 또한 작품 속 인물들에게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의 공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향촌의 정체성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향촌에 남아 뻬홍치를 기다리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녀에게 있어서 베이징은 결코 노래 제목과 같은 ‘사랑하는 베이징 텐안먼(我愛北京天安門)’이 될 수 없었다. 뻬홍치는 베이징의 중심부를 그의 아내에게 보여주며 베이징이 얼마나 화려하고 사랑스러운 곳인지를 일깨울 수 있도록 하지만, 그녀는 베이징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고, 뻬홍치와 함께 베이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재미있는 것은 상기한 심리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아내의 상상 속 베이징과 실제 베이징의 지리적 경관이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쉬저천은 지리적 경관과 함께 앞서 뻬홍치의 이사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베이징의 중심부로 점차 이동하게 되는 경관의 이동을 이용한다.

우리와 헤어진 후 두 사람(뻬홍치와 그의 아내)은 버스를 타고 궁주펀(公主墳)역에서 지하철을 탔다. 그녀는 텐안먼을 보고 싶어했다. 그는 시단(西單)역 밖으로 나와 아내에게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창안제(長安街)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계속해서 여기가 시단이고, 여기가 스타이광장(時代廣場)이고,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도서 빌딩이라고 소개했다. ……(중략)

하지만 아내는 시단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중략)

“난 텐안면을 보고 싶어요. 진짜 베이징을 보고 싶다고요.”(강조 - 필자)

두 사람은 창안제를 빠르게 지나갔다. 호화로운 현대식 빌딩과 화려한 전통 건물, 옥상 유리와 물처럼 흐르는 차량 행렬이 사방에서 번쩍거렸다.

“여기가 바로 진짜 베이징이라고 할 수 있지. 고귀하고 위대하고 화려하니까!”

하지만 이것은 변홍치의 눈에 비친 베이징이고 아내 마음속의 베이징은 오직 텐안면이었다.³⁴⁾

그러나 미술교사로서 그토록 수없이 많은 텐안면을 그려오며 텐안면, 그리고 베이징을 머리 속에서 상상해온 그녀이지만, 텐안면의 현실, “진짜 베이징”을 마주하자 그녀는 곧장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그의 아내가 긴장과 기대에 부풀어 즈음 텐안면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게 텐안면인가요?”

그녀는 광장 입구에 우뚝 서서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다.

……(중략)

그녀는 정말 서럽게 울었다. 그 오랜 세월 텐안면을 수업이 그려왔는데, 원래 이런 모습이었더니.

……(중략)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20년 이상 쌓인 상상과 현실의 차이를 단숨에 뛰어넘기는 힘들었다. ……(중략) 왕푸징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슬퍼보였다.

……(중략)

“난 이런 것들이 다 싫어. 홍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요. 우리 이렇게 돈 벌지 말아요.”³⁵⁾

34) 쉬저천, 양성희 옮김, 〈아, 베이징〉, 《아, 베이징》, 글항아리, 2019, 92-93쪽.

35) 쉬저천, 위의 책, 93-94쪽.

베이징의 현실과 마주한 아내와 여전히 환상의 세계에 빠져있는 변홍치의 경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단순히 향촌과 도시 사이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향촌, 그리고 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구의 베이징을 통찰해낼 수 있는 주체성과, 그것이 지니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려한 베이징의 경관을 바라보는 아내의 슬픔, 그리고 귀향하고자 하는 바람은 그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변홍치와 그의 아내 사이의 차이는 그 주체성과 정체성에 있는 것이며, 부재와 소외의식 또한 고향에서 ‘국어교사’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존중받음에도 불구하고 ‘시인, 기자, 편집인’ 등 지적 권력의 중심부에 대한 열망, 그러나 그러한 꿈은 물론이고, 자신의 존재, 그것이 수반하는 주체성과 정체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변홍치에게 있어서 자신의 고향인 쑤베이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염증”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그는 ‘국어교사’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시인, 기자, 편집인’ 등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쑤베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곳이며, 더 나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고향인 향촌은 변홍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전해주는 회귀처로부터 베이징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홍치에게 불안감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쑤저천은 변홍치에게 불안한 향촌으로 ‘회귀’를 상이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의, 어쩌면 최소한 변홍치, 그리고 쑤저천 자신이 지니고 있는 향촌에 대한 내적 이미지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준다. 첫째, 자전거를 통한 원시적 회귀이다. 변홍치는 베이징 호적을 위한 아내와 이혼을 위해서 동업자 샤오탕(小唐)과 함께 자전거로 고향에 돌아갈 것을 결정한다. 실질적으로 이는 고향 쑤베이로 향하는 것이 아닌, 아내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정에 ‘원시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그 여정 자체가 하나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변홍치는 이번 귀향을 통해서 이혼에 실패했음은 물론이고, 자신과 아내 사이의 인간 근원적 가치에 대한 정서적인, 심리적인 간극이 깊음을 확인하

게 된다. 그는 베이징으로의 재차레 상경을 결정하게 되고, 이때는 전과는 다른, 버스를 타고 상경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는 ‘사스’라고 하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재앙이 현실적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사스가 아니었다면 자전거를 타지 않았을 것이고, 사스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자 버스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스라고 하는, 하늘의 재앙이 아니었다면 귀향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연히 원시로 되돌아가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원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근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벤홍치는 그 가능성을 잡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베이징 호적을 얻어내지도 못했다. 근원적 회귀처는 인간이 의식해내지 못할 뿐, 인간 존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이데거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 존재가 ‘타락’했을 뿐이다.

두 번째 방식은 베이징으로부터 ‘거부’됨으로써 내쫓기듯 회귀하는 방식이다. 벤홍치가 경찰에 붙잡히며 더 이상 온전히 베이징에서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그의 아내는 베이징으로 달려와 그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때의 귀향은 그 어떤 자신의 의지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벤홍치가 고향, 혹은 아내에게로 온전히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때의 귀향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벤홍치라는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이상과 주체, 정체성이 합치된 공간을 찾기 어려워졌다. 그것은 베이징이든, 아니면 쑤베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오직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결국 쉬저천이 그려낸 베이징, 쑤베이 등의 공간은 벤홍치의 내면적 정서를 통해 표면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불안한 곳, 돌아가지 못할 곳, 나를 거부하는 곳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품고 있는 공간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증표들과 함께 벤홍치와 관계 맺음으로써 벤홍치의 내면적, 정서적 상태를 보여주는 관계, 정서적, 내면적 개체화를 진행하게 된다.³⁶⁾

V. 나오며

쉬저천은 자신이 굳이 ‘베이징’을 그려내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베이징을 써내는 것이 아마도 여기에서 생활하여 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써야 때문에, 나는 내적으로 열심히 그것이 다른 것들과 다른 점을 파내었고, 그것은 때마침 생활 속에서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였으며, 다년간에 그것에 부여된 의의는 생활하는 사람에게 압박이자 성취였다. 하나의 도시와 인간의 관계는 사실 한 인간과 세계의 관계인 것이다.(강조 - 필자) 베이징은 분명 독특한 도시이다. 중난하이가 있고, 톈안먼이 있고, 고궁이 있고, 장성과 십삼릉이 있고,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이 있고, 중관촌과 구이구(硅谷)가 있으며, ‘징파오’, 외래 이주민들과의 이미 끝난 올림픽이 있다.³⁷⁾

결국 베이징은 표면적으로 ‘징파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는 공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쉬저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베이징에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작품 속에서 여러 지리적 공간,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개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증표들은 여러 관계 맺음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그 관계 속 인간 개체 또한 새로운 개체로의 개체화를 이룬다. 그냥 때마침, 우연히 베이징에 중난하이, 톈안먼, 고궁, 베이징 대학과

36) 시몽동이 제시하는 정신적 개체화에 대한 내용은 질베르 시몽동, 위의 책, 496-517쪽 참고.

37) 所以我想, 我寫了北京, 也許僅僅因為我在這裏生活, 我心有不安. 因為我要寫, 所以就潛下心來認真挖掘它的與眾不同處, 它和每一個碰巧生活在這裏的人的關係, 多年來它被賦予的意義對生活者的壓迫和成全, 一個城市與人的關係, 其實也就是一個人與世界的關係. 北京的確是個獨特的城市, 有中南海、天安門、故宮、長城和十三陵, 有北大和清華, 有中關村和矽穀, 有“京漂”、外來人口和已經結束的奧運會. 徐則臣, 〈此心不安處是吾鄉〉, 위의 책, 168쪽.

칭화 대학 등과 같은 표상으로 그려진 환상의 세계가 있었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여러 움직임 속에서 쉬저천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포착한 것이다.

벤홍치와 그의 아내의 대비는 그 공간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던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과 주체와 정체성과의 공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현실 속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불안감을 주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아내는 물론이고, 벤홍치에게 있어서도 베이징이라는 도시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불안한 공간이었다. 다만 “진짜 베이징”이 아닌, “환상의 세계”인 베이징에 있고자 하는 욕망이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되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내에게 있어서 쑤베이는 벤홍치의 베이징, 즉 “환상의 세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 빠질 수도 있다. 벤홍치는 그곳에서 나름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벤홍치의 아내와는 다르게, 벤홍치에게 있어서 고향은 단순히 정체성과 조금 더 부합한다고 해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아내의 내면 속 “환상의 세계”였던 쑤베이는 벤홍치에게는 “환상의 세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쑤베이가 “환상의 세계”가 될 수도 있다.³⁸⁾ 그러나 벤홍치가 쑤베이에 느꼈던 염증은 그 환상의 세계가 ‘진실 된 쑤베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남기에 된다.

결국 베이징을 통해서, 지리적 감각을 통한 ‘징파오’를 통해서 쉬저천은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주체와 정체성의 상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며, 이것이 “환상의 세계”인 베이징, 그리고 ‘향촌의 상실’로 나타난 것이다. 향촌의 상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물질적 귀소처가 사라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

38) 이는 화자인 ‘나’와 이밍, 벤홍치와 동업하는 샤오탕이 벤홍치의 아내에게 느낀 인상을 통해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다. 쉬저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상기한 바를 표현하기 위해서 쉬저천은 지리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실제로 베이징은 단일적인 경관만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 아니다. 장치(張琦)는 쉬저천이 베이징의 일부분만을 통해서 모두에게 전달 가능한 윤리적 서사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³⁹⁾ 이는 베이징이라는 공간이 비록 지리적으로 중국의 일부분이며, 작품 속의 공간은 그 중에서도 일부분이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에 기인한다. 또한 작품 속에서도 드러나듯, 쉬저천의 바라보는 중국인의 현실은 사람들의 상상과 현실과의 괴리만이 존재할 뿐, 베이징의 현실과 향촌의 현실은 일상적 삶 속 인간 존재에게서 그 간극이 좁혀진다.

쉬저천은 실제 베이징 대학 부근이라고 하는 특정 지리적 공간만을 통해서 베이징의 다양한 경관들을 보여주었다. 황폐한 서문, 화려한 동문, 수많은 군중들이 뒤섞이는 남문, 이들 공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경관은 여러 상징적인 증표들과 결합하여 오늘날의 인간이 얼마나 편향된 시선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환상의 세계”가 “진실 된 베이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다양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각각의 요소들, 존재들과의 편향된 상호작용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상기한 수없이 위조되었지만 벤홍치는 그것조차 가질 수 없었던 신분들, 자신의 돈으로 즐기는 식사자리에서 오직 벤홍치만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음식들, 허름하지만 벤홍치에게 만큼은 너무나 낭만적인 아파트 등 모두 벤홍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변모하고, 베이징이라는 공간과 함께 벤홍치라는 인간 개체의 내면 속에서 새로운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존재적 위기에 놓인 벤홍치 개인의 변화한 개체성을 보여주는 증표들인 것이다. 따라서 상기한 증표들과 공간의 종합은 단순히 베이징 대학 근처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이라는 대도시, 중국이라는 국가, 더 나아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보여준다.

39) 張琦, 〈地理空間·敘事倫理·生命感覺——徐則臣的小說北京〉, 《南方文壇》 第2期, 2009, 107쪽.

작품 속 화자, 그리고 작가 쉬저천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벤홍치의 삶 주위를 방랑하며 벤홍치가 겪고 있는 위기를 관조하며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화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벤홍치와 같이 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붙잡혔을 때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것, 그리고 그것을 그려내는 쉬저천의 모습은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내면 속 불안감으로부터 기인한다. 즉 벤홍치로부터 자신 역시 비슷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으며, 벤홍치의 불안으로부터 자신의 불안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외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출판사, 2005.
- 권경록,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文學地理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09.
- 김홍식, 《현대 도시 산책자(Flâneur)로서의 장소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1.
- 쉬저천, 양성희 옮김, 《아, 베이징》, 글항아리, 2019.
- 스튜어트 엘든·전국조 옮김, 《앙리 르페브르 이해하기》, 경성대학교출판부, 2018.
-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 오동훈, 〈문학지리학에 있어서신문화지리 관점의 경관 독해: 『달콤한 나의 도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7.
- 윤병렬,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에서 고향상실과 귀향의 의미〉, 《현대유럽 철학연구》제16호, 2007.
- 이보고, 〈“베이피아오(北漂)”의 부유(浮遊)와 도시 공간의 의미〉, 《중국어 문학논집》제122호, 2020.

- 이푸투안·윤영호 외 옮김,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 조관희, 〈표상 공간으로서의 베이징(北京)〉, 《중국어문학논집》제40호, 2006.
- 질베르 시몽동·황수영 옮김,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그린비, 2017.
- 최영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차원의 공간분석방법론 구축 및 적용》,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5.
- 황수영,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그린비, 2017.
- 翟文鍼, 〈70後一代如何表述鄉土 ——關於徐則臣的“故鄉”系列小說〉, 《南方文壇》第5期, 2012.
- 丁帆, 〈中國鄉土小說生存的特殊背景與价值的失范〉, 《文藝研究》第8期, 2005.
- 郜子慧, 《論徐則臣小說中的鄉土想象》, 吉林大學碩士論文, 2020.
- 李丹, 〈棄鄉與逃城——徐則臣“京漂”小說的基本母題〉, 《文藝爭鳴》第11期, 2011.
- 劉昕, 《徐則臣小說創作中的北京書寫》, 東北師範大學碩士論文, 2018.
- 劉雪娥, 《徐則臣小說的空間敘事研究》, 西北師範大學碩士論文, 2016.
- 邵燕君, 〈徐步向前——徐則臣小說簡論〉, 《當代文壇》第6期, 2007.
- 徐則臣, 〈區別, 然後確立——答〈文學報〉傅小平兄十七問〉, 《黃河文學》第6期, 2007.
- 徐則臣, 《從一個蛋開始》, 浙江文藝出版社, 2019.
- 徐則臣, 《跑步穿過中關村》, 北京十月出版社, 2021.
- 徐則臣, 《無法返回的生活》, 長江文藝出版社, 2021.
- 張立新, 〈在故鄉與他鄉之間的精神往返——徐則臣小說創作論〉, 《當代文壇》第3期, 2007.
- 張麗軍 外, 〈70後作家: 如何成爲“中堅代”〉, 《小說評論》第1期, 2015.
- 張琦, 〈地理空間·敘事倫理·生命感覺——徐則臣的小說北京〉, 《南方文壇》第2期, 2009.

<Abstract>

Since the 2000s, several writers and works dealing with the identity confusion experienced by the contemporary Chinese have appeared. Xu Ze Chen(徐則臣) is a writer representing these writers, and his work *Ah, Beijing*(啊, 北京) can also be said to be a work that shows the above-described theme consciousness of Xu Zichen.

Xu Zhichen compares imaginary Beijing with real Beijing, Beijing and a local village, revealing the sense of alienation and absence of people living in China today. In particular, “Ah, Beijing” effectively portrays the sense of theme that he is trying to say through the specific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surrounding Beijing University and its symbols.

Based on the above, this paper tries to examine how the various spaces appearing in the work represent the reality of the characters in the work and what it means through Gilbert Simondon's theory of individuation and Literary Geography perspective. This can be an attempt to examine the theme consciousness of Xu Zichen and his work “Ah, Beijing”, and seek the direction in which the contemporary Chinese identity confusion be viewed.

Keywords: 쉬저첸(Xu Ze Chen), <아, 베이징>(‘Ah, Beijing’),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 개체화(Individuation), 정체성(Identity)